



2021 연예수학능력평가

수험번호

‘밈’(meme).

요즘 이 단어를 모른다면 주위 사람과 대화하기 어렵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특정 콘텐츠를 패러디·변조·복제해 공유하는 놀이문화를 뜻한다. 유튜브와 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동영상, ‘짤’(사진), 신조어 등이 모두 ‘밈’이다. 최근 역주행 인기에 성공한 비의 ‘깡’,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개그 캐릭터 최준 등을 떠올린다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그래도 어렵다고? 최근 ‘밈’ 현상의 대표적 사례를 퀴즈로 들여다보자. 10개 문항의 퀴즈를 풀어간다면 당신도 ‘유행 좀 아는 요즘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걸 안다면 당신도 ‘요즘 사람’!

10개 ▶ 눈도 귀도 밝은 ‘요즘 사람’ 7~9개 ▶ 간발의 차,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4~6개 ▶ 유행도 ‘열정’이다! 공부합시다 0~3개 ▶ ‘라떼’는 금지, 아 옛날이여~



1.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낳은 유행어로, 신날 때 외치면 막 좋은 구호이다. 2010년 알래스카 특집에 출연한 앵커리지 한인회관 최규재 노인회장이 “무한~도전!” 대신 외친 이 말은?

- ① “이야~호!” ② “히트다 히트!” ③ “무야~호!”
④ “새~!” ⑤ “소리 질러~!”



2. ‘역주행 인기’의 주인공인 4인조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멤버들은 ‘왕눈이자’(은지), ‘메보자’(민영), ‘단발자’(유나) 등 별명으로도 불린다.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를 닮았다는 의미로 멤버 유정에게 붙은 별명은?

- ① 파이라자 ② 이상해자 ③ 피카츄자
④ 고라파덕자 ⑤ 꼬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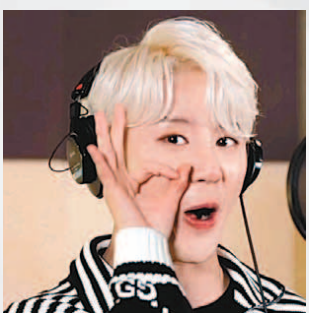
3. 남성그룹 2PM의 노래로, 최근 유튜브에서 다시 화제물이 중이다. 집으로 끌고 가는 듯한 춤을 선보이며 남성미를 뽐내 여성 팬들의 마음을 뒤흔든 곡은?

- ① 우리집 ② 하트비트 ③ 내 귀에 캔디 ④ 핸즈 업 ⑤ 하.니.뿐



4. 개그맨 김해준의 ‘부캐’ 최준은 유튜브에서 ‘준며든다’는 유행어를 만들며 인기를 끌었다. 특하면 “어, 예쁘다”라며 귀여운 척하는 34세 최준의 직업은?

- ① 학생 ② 가수 ③ 기타리스트
④ 카페 사장 ⑤ 개그맨



5. 최근 틱톡·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2003년 일본 가수 오오즈카 아이가 부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연기자 한지현·가수 김준수 등이 참여한 챌린지의 이름은?

- ① 사쿠라 ② 사쿠라노 ③ 사쿠라메
④ 사쿠라이 ⑤ 사쿠란보



6. 최근 SBS ‘펜트하우스2’의 인기로 힘입어 김소연 작가의 전작 ‘아내의 유혹’도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아내의 유혹’ 주인공 장서희가 정체를 속이기 위해 얼굴에 찍은 점의 위치는?

- ① 오른쪽 코 옆 ② 오른쪽 눈 밑 ③ 왼쪽 눈 밑
④ 왼쪽 턱 밑 ⑤ 오른쪽 턱 밑



7. “간지러웠어!/그래서 참았어!” 배우 이광수가 취 2009년 MBC ‘지붕 뚫고 하이킥’ 이후 최근까지 수많은 패러디 영상을 낳은 ‘○○춤’은 어떤 곤충을 주제로 했을까?

- ① 파리 ② 모기 ③ 장수풍뎡이 ④ 나비 ⑤ 나방



8.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목받은 밴드 이남치의 대표곡이다. 한국관광해의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돼 ‘K-흥’이란 별명을 얻은 노래는?

- ① 학 내려온다 ② 개 내려온다 ③ 용 내려온다 ④ 범 내려온다 ⑤ 소 내려온다



9. 최근 일본의 한 동요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한 2살 소녀. 귀여운 몸짓과 정확한 음정으로 수많은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낸 가수 우영·태연 등까지 팬으로 만든 아이는?

- ① 노노카 ② 사나 ③ 나코 ④ 모모 ⑤ 히토미



10. 그룹 방탄소년단은 각종 유행어와 ‘짤’을 따라하는 등 유행에 민감하다. 아래 중 멤버들이 말투와 몸짓 등을 따라하지 않은 인물은?

- ① 여고생 아미 ② 노홍철 ③ 스윙스
④ 제임스 코든 ⑤ 뽕수

1. ③ / 2. ⑤ / 3. ① / 4. ② / 5. ⑤ / 6. ③ / 7. ② / 8. ④ / 9. ① / 10. ④ [모집]

연예

스포츠동아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11

연예뉴스 HOT 5

로제, 한국 여자솔로 첫 ‘핫 100’ 70위



로제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한국 여자 솔로가수 최고 순위인 70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23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로제의 첫 번째 싱글 ‘R’의 타이틀곡 ‘온 더 그라운드’(On The Ground)가 ‘핫 100’의 70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역시 한국 여자 솔로가수로는 지난해 9월 차트 신설 이래 처음이다. 서브 타이틀곡 ‘곤’(Gone)도 ‘빌보드 글로벌 200’ 29위를 기록했다.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 역사왜곡 논란



‘조선구마사’의 한 장면

SBS 새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조선 태종 시대를 배경으로 22일 첫 방송한 드라마는 월병 등 중국풍 소품을 등장시켜 논란을 불러 모았다. 극중 총병대군이 서양 신부를 접대하는 장면에 관련 소품과 함께 중국풍을 떠올리게 하는 세트 등이 입김에 올랐다. 일부 시청자는 드라마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거나 청와대 국민청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진은 “등장인물을 설명하기 위한 설정이었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유리, 아들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사유리

‘자발적 미혼모’인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아들과 함께 KBS 2TV 육아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다. 제작진은 23일 “사유리가 생후 14일 된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로 했다”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유명인 아빠들이 48시간 동안 육아를 맡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에 엄마가 전면에 출연하는 것은 사유리가 처음이다. 사유리는 지난해 11월4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KBS, 5년 만에 새 대하사극 선보인다

KBS가 5년 만에 대하사극을 선보인다. 2016년 1TV ‘장영실’ 이후 5년 만이다. KBS는 23일 “새 대하사극은 조선 태종 시기를 배경으로 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올해 말 첫 방송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용의 눈물’과 ‘태조 왕건’ 등 대하사극으로 시청자 시선을 모았다. KBS는 대하사극을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 요구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공영방송 역할 강화’를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9월30일 LA에 오픈



봉준호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9월30일 미국 LA에서 문을 연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 과학아카데미(AMPAS)는 23일 이 같이 밝히고 “지난 90년 동안 모이는 아카데미상 관련 다양한 소장품을 박물관에서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봉준호·이창동 감독 등 한국인 예술인도 프로그램에 포함하며, 상설전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박물관은 4월 26일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 22일 관련 버추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채널A 강철부대, ‘군대예능 끝판왕’ 도전장



“1회 만에 느낌이 팍 왔죠. ‘건졌구나!’”

노련한 김성주도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다. 채널A와 SKY가 함께 제작해 23일 방송을 시작한 새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의 인기를 일찌감치 알아봤다.

24명의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전략 분석팀’ 겸 진행자로 나선 김성주는 “비록 취사병 출신”이지만 “강철부대원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짜고 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가득한 현장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목에 핏대 세워가며 중계했다”고 밝혔다.

김성주를 포함해 슈퍼주니어 김희철, 종합격투기 선수 김동현, 개그맨 장동민, 걸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추 등 방송가의 주목받는 연예인이 총출동했다. 제707특수임무단 대테러 교관 출신 방송인 최영재는 예비역들의 대결을 진행하는 ‘마스터’로 활약한다. 장시원 책임프로듀서와 이원웅 PD 등 채널A 히트프로그램 ‘도시어부’ 제



채널A 새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의 출연자인 개그맨 장동민·방송인 김성주·슈퍼주니어 김희철·이달의소녀 추·종합격투기 선수 김동현·제707특임단 출신 방송인 최영재(왼쪽부터)가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작진이 이들을 이끈다.

이들은 첫 방송을 앞둔 이날 오후 제작발표회에서 “시즌2까지 노린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원픽’ 고르는 재미 듬뿍”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병대 수색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해난구조전대(SSU) 등 국내 ‘티어 1급’(각 특수부대의 임무 등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등급) 6개 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각종 미션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24명의 참가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잡아끄는 원동력이다. 가수 오종혁과 연기자 안태환은 해병대 수색대, 트로트가수 박군(박준우)은 특수전사령부의 팀원이다. 김희철이 ‘팬’을 자처한 UDT 육준서, 장동민이 “시작하자마자 반전의 투지에 놀란 인물”로 지목한 SDT 강준 등도 주목된다.

김희철은 “저마다 다른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있다. 보다보면 마음이 가는 팀이 나 참가자가 생길 것”이라며 “나만의 ‘원

개성 강한 캐릭터들, 응원하는 재미
공정한 전략 미션…각본 없는 드라마

픽’을 꼽아 응원하면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시청 포인트를 소개했다.

●“가학성 논란·불공정성 모두 차단”

프로그램은 “극한의 정신력·체력을 요구하는 미션을 아무 정보 없이 눈앞에서 맞닥뜨리는” 참가자들이 “한 편의 ‘대본 없는’ 드라마”를 펼치는 무대로 통한다. 특히 제작진과 출연진은 “이전의 군 예능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연출자 이원웅 PD는 “이미 훈련에 최적화해 우열을 가릴 의미가 없는 전문가들이 팀워크와 전략 등으로 승패를 가른다”면서 “미션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냈을 때 희열감을 누리는 이들의 모습이 색깔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분야가 각기 다른 참가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이 PD는 “특수전사령부·707특임단 등을 10년 이상 거친 전문가와 육·해·공군 장교, 부사관 등이 특정 팀에 유리하지 않게 수없이 논의해 설정한 미션에 현장에서는 어떤 불만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